

‘35년 표류’ 무등산 온천 개발, 결국 ‘없던 일’ 되나

광주시, 윤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의견 청취 공고
환경단체 반발·온천법 개정 14년만에 사업 백지화 수순

35년 간 개발 ‘של’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동구 윤림온천지구 개발 사업이 끝내 무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광주시는 9일 ‘동구 윤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동구가 윤림온천에 대한 ‘온천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지정 해제 절차가 이뤄지면 개발 사업이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무려 30년 간 추진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했던 윤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는 광주시 동구 윤림동 산94번지 일대 지정된 40만여㎡ 부지로, 해당 구역은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토지용도가 결정되며, 용도 이외의 개인적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윤림온천 개발 사업은 지난 1990년 광주시가 ㈜프라임월드로부터 온천공 발견 신고를 받은 뒤, 해당 부지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프라임월드는 측은 이후 외국 자본을 유치해 윤림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일대에 호텔 등 숙박시설, 상업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주차장 등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무등산 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환경단체와 시민 반대에 부딪혔다.

㈜프라임월드는 수차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광주시에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지금까지도 미개발된 자연녹지 상태로 남아 있다.

광주시 동구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온천법에 따라 수리 취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 승인 또는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리를 취소해야 한다.

동구는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적 기한인 3년을 훨씬 넘긴 14년 동안 수리 취소를 유예해 온 만큼 더이상 수리를 내놓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수리 취소와 관련, 자문 의견으로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 더는 유예할 수 없다”고 답

■윤림온천 개발 사업 추진 과정

1990년 ㈜프라임월드로 온천공 발견 신고
광주시,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
프라임월드는, 외자 유치 호텔·관광시설 등 추진
시민단체 “생태계 훼손·수질 오염” 반발
프라임월드는 계획 수정...환경부 허가 불발
광주 동구, 2010년 개정된 온천법에도
관광 자원 고려 취소 유예...14년만에 취소

변한 점도 반영했다.

㈜프라임월드는 측은 그러나 지난해 4월 국립공원공단과 위원회 논의를 진행하고 같은 해 10월 공원계획변경 신청을 내는 등 공원사업시행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밟아온 점을 들어 국립공원공단의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동구 관계자는 “온천은 관광자원으로서 잠재력이 큰 만큼 개발을 기대해왔지만, 법적 기한을 넘겨서는 미룰 수 없었다”며 “법 개정 이후에도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충분히 기다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 동구 윤림온천 예정 부지(노란 점선 안).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 바다가 이상해진다

- ☑ 고수온 평년보다 1도 높고
- ☑ 해파리떼 출몰 잦아지고
- ☑ 강력 태풍 더욱 세지고

이상기후로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전남 지역 해안에 해파리가 늘고 강력한 태풍이 예고되는 등 ‘이변’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9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여수, 고흥, 보성, 장흥, 완도 등 전남 지역 앞바다에 해파리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지난 4일 부산·경남 앞바다에 예비주의보가 발표된 데 이어 닷새만에 전남 앞바다에도 특보가 내려진 것이다. 해파리 예비주의보 발표가 2개 해역에 내려진 데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은 해

파리 대량발생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보름달물해파리에 대한 해파리예비주의보는 해파리가 ha당 평균 300마리 이상 나타날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진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보성 특랑만과 여수 가막만 주변 해역에서 ha당 6246마리에서 최대 4만여마리 발견됐다. 평균적으로는 ha당 1290마리가 발견됐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서는 해파리가 ha당 1290~1600마리 발견됐으며, 올해는 2~3월 저수온으로 해파리 발생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2주 이상 늦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재 해파리가 일부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나, 해수 유동에 의해 주변 해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올해 ‘고수온’ 현상도 예고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남해와 서해의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표층 수온이 평년(1991~2020년 평균값)보다 1.0도 안팎으로 높아지고, 특히 수심이 얇은 서·남해를 중심으로 수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고수온으로 인한 ‘강한 태풍’도 예상된다. 바다가 따뜻해지면 태평양의 기단이 안정화되는데, 그 안정성을 뚫고 태풍이 발생할 경우 태풍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태풍은 평년 수준인 2.5개로 비슷하거나 약간 적을 수 있으며, 주변 기압과 이동경로, 대기 조건에 따라 강도는 달라지기는 하지만 강한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보건의로 노조, 내달 총파업 예고

“국립대병원 경영위기 노동자에 책임 전가”

보건의로노조가 국립대병원의 경영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로노조연합노동조합 국립대병원지부는 10일 오전 11시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정문 앞에서 국립대병원의 연차축진제 도입 시도와 단체협약 위반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국립대병원의 경영 악화가 심화됐다”며 “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적자 해절을 이유로 연차 사용 강요, 무급휴가 중용, 인력 충원 중단, 물품 지급 중지 등 긴축 경영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대병원에서는 3교대 근무 병동별 간호사 수 유지에 대한 노사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경영상의 이유로 2년 전 공채로 합격하고도 채용되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도 상당하다”며 “다수

병원에서 환자 감소로 통폐합된 병동 간호사들을 일방적으로 PA 간호사로 재배치하고, 그만큼 줄어든 병동 간호사는 총원하지 않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더해 국립대병원장들이 연차축진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며 “강제연차, 강제무급휴가 도입 등으로 노동자를 비용 절감의 도구로 삼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연차 축진제 도입마저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 측이 계속된 희생만 강요한 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24일 전국 7개 국립대병원지부 노조원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누적 적자는 5600억원에 달하며, 전남대병원은 67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진수 기자 jinggi@kwangju.co.kr

대선 전 결론 못낸 ‘사법신회·재판독립’...법관대표 30일 회의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달 30일 임시회의를 다시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진행된 임시회의의 숙행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의는 정오까지 진행될 예정이나 경과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출석을 병행하는 형태였다.

논의 대상 안건은 지난달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다.

지난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린 안건들에 대해 이날 논의 후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열었지만 입장 채택 없이 대선 이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대표회의 측은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가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전국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 이상)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린다.

/연합뉴스

목타는 영광군...가뭄 ‘주의’

영광군에 가뭄 경보 ‘주의’ 단계가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7일을 기점으로 영광군(대신제, 북통제 공급지역)에 가뭄 경보 ‘주의’ 단계를 발효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예년 대비 저조한 강수량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비상 관정을 통해 다른 수원과 연계한 비상 급

수를 하고 있다.

진도군 등 일부 섬 지역에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6개월 동안 광주·전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361.5mm로, 평년(1991~2020년)값인 420mm에 비해 8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또한 홍수기에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경우, 7월에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탁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